

27회 민사서류 작성 분석 및 총평

이천교 법무사

이번 민사서류 시험은 마치 소장의 형식을 빌린(탈을 쓴) 민법 시험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청구취지 등 소장의 형식 자체(소가, 원고 피고,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명방법, 첨부서류 등)는 아주 간단했으며, 시험문제 분량도 많지 않았고 사례가 엄청 복잡한 내용도 아니어서,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관련 몇 개의 민사법적인 지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사서류 과목의 경우 동차 수험생이나 기득권 수험생 사이에 차이가 있기 어려운 시험문제였습니다.